

성도의 빛 6

1980





성도의 빛 6

1980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테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글랜드 리차드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앨름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교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넉크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리

차 례

논쟁은 끝났다.....엔 엘돈 테너 부대관장..... 1

질의 응답 3

인생은 선교 사업.....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6

나의 눈을 뜨게 해준 맹인.....아더 에스 앤더슨..... 9

예언자의 부름에 응한 열 아홉의
젊은이는 아니었다마빈 케이 가드너.....11

의사를 부르기 전에수제인 덴도이.....18

부모의 가르침.....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21

몰몬경 퀴즈 22

땅 도둑마지리 에스 케논과 루렌지 월킨슨.....26

심심 풀이 28

모든 규율을 지키.....에이치 켄트 레플레이.....29

여러분의 장점을 발견했습니까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32

모범의 힘.....찰즈 에이 디데이 장로.....34

변명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하라아치 엠 부트거.....36

마차에 가득 실은 금식 헌물크리스 젠슨.....38

지역 지도자 메시지한인상 장로.....44

해의 소식 45

지역 소식 46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STOCK NO. PBMA0460KO PRINTED IN SEOUL, KOREA 6/80

통 권 : 제179호, 제16권 제6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0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계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80년
제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권 조유

논쟁은 끝났다

대관장단 제1보좌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최 근에 개최되었던 교회 자매들을 위한 범교회적인 노년의 모임에서 청녀 회장 엘레인 캐논 자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예언자가 말씀하시면……논쟁은 끝납니다”(엔사인, 1978년 11월호 108페이지)

나는 간결하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것처럼 많은 영적인 의미를 주는 그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내가 성도들에게 드리는 권고는 예언자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모든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예언자를 두셨겠습니까? 그의 무한한 지혜로, 그리고 자녀를 위한 구원과 생명의 계획의 일환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야 할 계획을 주셨으며 우리를 인도하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지도력을 주셨고 기초를 놓고 기술을 개발하며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고자 교회 조직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전혀 자기의 독자적인 힘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호와 훈련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갓난 아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그 아기가 걷고 말하고 먹고 입을 것을 스스로 배우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지식이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가

능하게 하는 율법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훈련을 소홀히 하거나, 예언자의 경고의 음성에 귀기울여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사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의 권고에 항거하고, 비참함과 사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들을 고집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 예로써 지혜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조직된 후 곧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커피, 홍차, 알코올 음료, 담배 등등이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성도들은 이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당시 그러한 것들을 취하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상당히 개혁적인 것이었습니다. 계시가 주어진 후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은 물론이 그와 같은 무해한 것들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과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담배의 여러 가지 해로움을 발견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우리는 담배, 홍차, 커피 그리고 알코올 음료 등이 건강에 무서운 해를 끼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특히 임산부의 태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라면 예언자의 말씀의 진실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모시고 있는 가장 축복받은 백성이며 그의 권고를 따르는 자는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결코 얻지 못할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토론의 대상이 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의 바람직하고 적절한 해결을 기할 수 없으므로 하lah로부터의 지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필연입니다. 우리에게 예언자가 계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지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참된 말일성도에게는 망설임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의 메시지가 주님으로부터 오며, 시현과 고결한 성품을 지닌 자로서 스스로도 하lah로부터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총판리 역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는 자유의지가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택하는 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혼란케 하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하여 왜 토론이 있어야 합니까?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결혼, 이혼, 가정 생활과 자녀의 사랑, 부도덕성, 정절, 덕, 그리고 여성의 고귀하고 거룩한 역할에 대하여 분명한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구

약과 신약의 분명한 가르침을 거듭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멸망이 오게 된다는 것을 역사와 경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쇠망하였고, 개인적이거나 전체적인 멸망이 있었으며, 울음과 곡성과 큰 슬픔이 있었고, 기근과 역병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즐거움을 누릴 뿐이었습니다. 사탄은 도덕적인 문제에 혼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좌절시키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부를 약속으로 걸어놓고 그의 교활한 계획을 속임수로 증진시키려는 자입니다.

이같은 부를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제에 관한 토론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음료와 담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외설 서적을 취급하는 자들은 그들의 상품에 재산과 건강을 대가로 지불하는 사람들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탈취하여 축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외설물의 모델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자기 자녀가 그러한 일에 가담하도록 허락하는 부모도 있다는 생각이 몸을 떨게 합니다. 많은 어머니가 세상적인 쾌락과 가정을 떠나 세상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저들의 어린이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아내와 자녀의 복지보다는 재정상의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부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서 있습니까? 예언자가 말씀하실 때 토론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우리는

육신의 능력이

감당하는 대로 자주 그리고 늦게까지

자녀를 출산하여야 합니까?

“복음적인 가족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질문 곧 나의 전문 분야 밖의 질문을 나는 교회의 활동적이고 헌신적인 말일성도 여성으로부터 자주 듣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 부부가 임신 기간 동안에 몇 번이고 자신에게 자문하게 되는 질문에 적용되리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원리와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나온 목적이 성장과 성숙, 그리고 시험을 받는 데 있다고 가

르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를 지니고 있는 것에 먼저 나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혼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를 위한 육신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 깊이 고찰할 때, 나는 우리가 자녀를 갖고 가정을 갖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즐거움이며 우리의 영적인 임무라는 교회의 확고한 가르침에 또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긍정적인 면이 우리의 목표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나에게 더욱 인상적입니다.

나는 구원의 계획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 중의 하나가 자유 의지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기회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삼분지 일에게서 그들의 선택권을 박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들이 다른 권리 행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자유 의지의 원리는 우리의 준비 기간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은 교회 지침서나 모임이나 경전에서까지도 예, 아니오라는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없으며 다만 이 원리의 응용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은 문제를 자세히 연구하고 상반되는 상황을 검토하고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계

획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함에 있어서 영감받은 예언자들이 개인의 자유 의지의 계획을 침해하려 하지 않고 다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광범위한 지침 내에서 운용해 나가는 것을 볼 때 큰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애기를 유산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딸을 문병가셨던 지금은 작고하신 교회 대관장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사실대 초반이었지만 이미 여덟 자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이를 그만 낳을까요?” 대관장님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내게 묻지 말아라. 그 결정은 너와 네 남편과 하나님 아버지가 할 문제다. 너희 두 사람이 하나님을 떳떳하게 대하여 그분께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고 진실로 노력했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만 두거라. 그러나 어디까지나 너와 네 남편이 결정할 문제다. 주님과 만날 때 나 자신의 문제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자녀에 관계되는 문제, 곧 언제 가질 것이며, 몇을 가질 것이냐는 등 이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은 부부간의 진실한 토론과 기도를 가진 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라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게 유익했던 다음과 같은 측량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이기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죄는 이기심에서 오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십일조를 바치지 않을 때도 그 근원은 이기심입니다. 간음의 경우에도 그 원인은 이기심입니다. 부정적하다면 그것도 이기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의 이기심을 견책하신 것을 나는 경전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문제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이기심과 물욕으로 인하여 가족의 수를 제한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기심의 성품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경전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그것은 해의 왕국의 성품이랄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분석하여 우리의 동기를 발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합당치 않은 동기과 변명을 발견해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중요한 각도에서 문제를 연구하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부모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 자녀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모의 능력 등등이 그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부부가 즉시 또 다른 아기를 갖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때, 자녀의 태울 조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욕만이 피임의 방법이며, 다른 피임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혼 생활에 해를 끼칠 만한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전문의로서 나는 종종 여러 가지 생활에 관계되는 사회적-정서적인 증상을 치료해 달라는 요구에 접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나는 항상 과거나 현재의 예언자가 결코 자녀 출산이 결혼 관계의 유일한 기능이라고 규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육체적인 결합이 결혼 생활의 사랑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결혼의 단합을 높이며 강화시키는 강한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로운 은사입니다.

사도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선교사냐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그가 행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도 자신의 인생 방법에 대한 선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요?”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머니에 담배갑이 있는 것을 보니 애연가이신 것 같은 데, 선생님의 자녀들은 선생님께서 담배 피우는 것을 보며 자라기 때문에 그들도 크면 담배를 피우겠다는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애연가를 위한 선교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담배가 유익하다고 생각지 않을 뿐더러 내 자녀에게는 절대로 담배 피우는 것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초대하는 나쁜 습관인걸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여행을 계속 하는 동안 흥미있는 토론을 나누었으며 토론의 주제는 우리가 모두 선교사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선교사는 될 수 없었습니다.”(우리 중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나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선교사”라는 말이 아주 좁은 의미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이 따로 있고 “선교 사업”은 또 다른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좀더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의 세계에서 이 지상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밝혀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기로 지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때에 이 지상에 나오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생 전체를 “복음 선교 사업 기간”이라는 특화된 기간을 포함한 큰 선교 사업의 기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지상 생활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유아 축복에서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대의 일생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다.” 또는 장례식에서 흔히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의 일생의 사업은 이러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또는 “그의 일생의 사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명 혹은 선교 사업이란 선악간에 목적을 가진 삶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선교사”라고 하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말씀이 교회와 우리의 생활에 그토록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이유는 그것이 근본적인 영원한 진리를 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모두 선교사입니다. *



나의 눈을 뜨게 해준 맹인

아더 에스 앤더슨

결코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나에게 지도력의 원리에 대한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이 일은 어느 날 솔트레이크시의 이글 게이트 모퉁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횡단보도에 다달았을 때 맹도견을 데리고 어떤 맹인(후에 그의 이름이 짐 갠스키임을 알게 되었다)이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개는 그곳에 서 있는 버스에 시야가 가려서 길을 건너도 안전할지 몰라 주저하였습니다. 나는 돕고 싶은 마음에서 맹인의 팔을 잡고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걸으면서 개가 주저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설명을 거의 끝낼 무렵 우리는 거의 길 중앙까지 왔는데 이미 개는 여러 차를 나를 쳐다보더니, 이상한 듯이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의 재갈의 꼬임은 분명히 주인에게 관심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맹인은 나에게 정중하게 설명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고 인사한 다음에 엄숙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좋으시다면 제 팔을 놓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대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교훈입니까! 일단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였으면 그 일을 다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은 1960년대 후반 동부 해안의 여러 선교부를 감리하실 때 위임에 관한 좋은 교훈을 말하고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북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선교부를 찾아 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유럽 선교부장으로서는 이 루신 놀라운 업적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그분이 선교부 관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해답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나는 어려운 문제에 관하여 물으면서 그의 조언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떤 선교부장은 그러한 문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했고 또 다른 곳의 선교부장은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항상 그는 해결가능성을 시사하시고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결정권을 내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6일 후에 그는 내가 요청한 도움에 대하여 답을 해주시되 그 방법을 결정하는 책임과 나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을 나에게 남겨 놓고 비행기편으로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시는 유능한 지도자가 내게 가르쳐 준 많은 유익한 교훈 중의 하나였습니다.

후에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글을 읽으면서 위임과 관리 직분에 대한 그의 철학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언자께서 영국에서 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예언자에게 권고를 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권고를 준 후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형제님들이 내게 권고를 부탁한 문제 가운데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나보다

그곳의 특정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형제님들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는 나의 뜻을 형제님들에게 밝혀 잘못을 지적하겠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편, 테러렛 출판사) 여러 해 전에 나는 신권 가정 복음 교육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총관리 역원과 함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여 가정 복음 교육에 관한 지도력 원리를 가르친다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아이다 호주, 레후트 리버 스테이크의 토요일 저녁 신권 위원회에서 칠십인 제일 위원회의 에이 디어더어 터틀 장로는 나에게 발표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15분 동안 가정 복음 교육의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스테이크의 형제들의 실적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라고 생각되는 바를 발표하였습니다. 청중들은 뒷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약간 하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예의바르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가지의 흥미있는 이야기와 나의 모든 열의를 총동원하여 뒷줄에서의 하품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말씀을 끝나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큰 계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준 코우치와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터틀 장로가 회중에게 이야기하려고 일어섰을 때 그의 표정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앤더슨 형제님의 발표를 주의깊게 들으려 하였지만 생각이 자꾸만 다른 곳으

로 갔습니다. 나는 내가 지명받고 있는 가정 복음 교육 가정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려는 실질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 그들은 나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내가 그들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릴테니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제언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터틀 장로는 신의를 배반하는 개인적인 일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몇 가지의 문제점을 예화로 들어 제시하였습니다. 곧 회중 가운데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신권회 회원들은 제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중 모든 사람들이 이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도운 것입니까? 그들은 가정 복음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도와 배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었던 위대한 교사의 업적을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사람을 인도하고, 위임하고, 열의를 불러일으켜 주었으며, 배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태도의 변화를 거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지도력은 우리 자신을 인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가르침대로 생활하는) 자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들깨 지체를 지키라는 책임에 긍정적으로 응하여, 구세주께로 돌아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버디 커내스터와 그의 아내 마르티나
 라내는 열여덟 살에 침례를 받은 후
 로 거의 16년 동안 비활동이었다. 유타
 주, 드레이더에서 온 번과 윌마 리친스
 가 그들에게 접근하기 까지 교회에서는
 아무도—선교사를 포함해—그들과 이야
 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 리친스 장로와
 자매가 테네시주, 제임스타운의 그의 집

대문을 두드렸을 때, 버디는 그들이 누
 구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 예의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리친스 장
 로는 거실 벽에 걸려 있는 사슴 머리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커내스터 형제님,
 저것은 흰꼬리 사슴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봐도 좋습니까? 누가 박제하였

예언자의 부름에 응한 열 아홉의 젊은이는 아니었다

마빈 케이 가드너



나요?”

“제가 했습니다.”

버디는 그들을 집안으로 안내하였고, 약 두 시간 동안은 그들은 교회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기 전에 커내스터 형제는 그들이 기도드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리친스 자매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들이 맥의 세 따님에게 교회에 대하여 가르쳐도 될까요?”

“그 아이들은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약간의 대화가 더 오고 간 후에 버디는 양보하였다. 그것이 목요일이었다. 금요일에 첫번째 토론을 가졌고, 일요일에는 전 가족이 교회에 참석하였다. 일주일 후에 그 가족은 두번째로 교회에 참석하였고, 네번째의 선교사 복음 토론을 끝냈다. 장녀가 이렇게 물었다.

“리친스 형제님, 언제 저희들을 침례 주실 수 있나요?”

“자매님들의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되지요.”

“좋습니다”라고 버디는 대답하였다.

“첫번째 복음 토론을 가진 후부터 우리는 담배와 술을 끊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리친스 장로는 그 주말에 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커내스터 형제는 그 다음 일요일에 제사모 성임되었다. 그 후 수 개월 동안, 리친스 장로는 그를 장로로 성임하였고, 스테이크 부장의 지시 아래 그를 지부장단 제2보좌로,

다음에는 지부장으로 성별하였으며, 리친스 가족은 워싱턴 신전에서 커내스터 가족의 인봉 의식의 증인이 되기도 하였다.

리친스 부부는 선교사였다. 다른 많은 부부 선교사처럼 그들은 이 봉사 기간을 희생의 기간으로 여기지 않고 민족의 기간으로 생활했으며, “우리 생애에서 누려 보지 못한 가장 큰 만족”이라고 했다

부부 선교사란 무엇인가? 그들은 나이트 부부로서 “신전 추천을 받기에 합당하고,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집안에 있지 않으며, ...선교 사업 중에 사용될 재정에 대한 문제가 없고, ...건강한 사람”인 것이다. (선교사 지침서 28페이지) 그들은 일반적으로 18개월을 봉사하나, 그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선교사과가 그들을 “교회의 가장 훌륭한 선교사”라고 말하는 때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그들이 지역의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점, 회원들과의 유대, 그리고 그들의 선교 사업이 그것이다.

지역 지도자의 강화

부부 선교사는 흔히 해당 지역의 지도자들이 연령적으로 보다 완숙한 부부의 경험, 성숙성, 그리고 지도력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지역에 임명된다. 물론 직접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임명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의 신권 지도자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으로 쌓은 가르침과 모범으로 저들을 강화시키게 된다.

전 선교사과 책임자였으며 칠십일 제일 정원회의 회원이신 로이든 지 테릭 장로는 그가 선교부장 재임시 영국의 리버풀과 프레스턴에 스테이크를 조직

할 때 큰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은 지역 지도자들과 협력하였던 부부 선교사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과의 책임자이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일원인 칼로스 이 애씨 장로는 서부 텍사스 스테이크 부장이 당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애씨 장로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부로 부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을 지니고 있는 훌륭한 교회 회원”인 아이다호주, 토티의 벨빈 장로와 애니 쿡 자매를 그곳으로 보냈다.

쿡 장로는 지부장단의 보좌로서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을 훈련시켰으며, 그의 아내는 보조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였다.

“그들은 현명했습니다.”라고 애씨 장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부 회원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해주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훌륭하게 기능을 발휘하는 지부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회원에게 모범이 됨

부부 선교사는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지부와 와드에 힘이 되어 준다. 선교사와 책임자이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인 렉스 디 피베가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 선교사는 교회가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의 산 모범입니다. 선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나타나는 강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고 아울러 교회에서 일생을 바쳐 봉사하는 모범과 지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젊은 부인은 아리조나주 메사의

라일 장로와 엘렉타 힐튼 자매가 해임된 후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형제님 부부께서 제게 힘이 되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두분처럼 연로하신 분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습은 저에게 제가 신전에서 결혼하고 두분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은 봉사과 행복의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가정의 밤을 갖고, 병든 회원을 방문하며, 경험이 부족한 신권 지도자로 하여금 가족을 위하여 신권을 집행하게 하고, 채소밭을 가꾸는 방법을 회원들에게 보여 주는 일등, ...이러한 구체적인 일들이 회원을 강화시키며, 저들이 물문의 생활 방법대로 살도록 힘이 되어 준다.

유타주 바운티폴의 벨빈 에이치 장로와 드후이 엘 로빈스 자매는 그들이 아리조나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중에 가족 중 일부만 회원인 14가정의 비회원을 모두 교회로 이끌 수 있었다. 영국의 전 브리스톨 선교부장이었던 솔트레이크시티의 아들드 나프 형제는 1년에 약 600여 명의 비활동 회원이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부부 선교사의 영향으로 활동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테릭 장로는 그가 아일랜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부부 선교사 때문에 성찬식 출석율이 거의 3배가 되었다고 전한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해낼까요? “문자 그대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유타주 바운티폴의 라 노이 캐논 자매는 말한다. “제 남편 케일은 사람들의 닭장 만드는 일, 토끼장 만드는 일 등을 도왔지요.

우리는 어떤 가족이 도마도 통조림을 만드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우정을 맺었어요.”

지역 사회의 한 부분
알차고 성실한 생활의 경험은 지역 사회의 활동에도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들의 경험으로 인하여 이들 부부는 사람들과 잘 접촉할 수 있고 쉽게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

“젊은 선교사들은 흔히 방문객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에 부부 선교사는 지역 사회의 시민으로 간주됩니다”라고 피네가 장로는 말씀한다.

그들은 “토백이” 거주인으로서 대체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친구를 사귀며, 새로운 친구들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관심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테릭 장로는 말한다. “부부 선교사들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부부 선교사들이 합당한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웃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열려질 수 없는 문을 열고 있는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리친스 부부가 테네시주 제임스타운에 도착하였을 때 85세 고령의 밀러씨가 그들의 뒷집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밀러씨는 리친스 아파트로 와서 사다리를 빌려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지붕에 비가 새서 다른 사람에게 수선을 부탁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실제로 사다리를 빌려 오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몇 주후 리친스 장로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사다리를 들고는 밀러씨의 집으로 갔다. 사다리의 거의 중간까지 올라갔을 때 밀러씨가 집에서 나왔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전도사님?” 그가 불렀다

“할아버지 지붕을 고쳐 드리려고요.”
일을 마치자 밀러씨는 지갑을 열고는 20불짜리 지폐 두 장을 꺼냈다. “일 해 주신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제게 지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요. 고맙다고 인사만 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 전부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물몬 ‘전도사는 주님의 사업을 행한 것에 대하여 돈을 받지 않습니다.’”

밀러씨는 굳이 돈을 주려 하였다. 그러나 리친스 장로는 “아닙니다. 저는 다만 친구로서 일을 해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할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드린 것이예요,”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나는 당신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걸요.”

“할아버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 주가 지나서 비물몬의 잡화상 주인은 리친스 장로에게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밀러씨의 목사가 잡화상에서 그에게 인사를 하고는 요즈음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견책하였고 노인은 그것을 온순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목사가 그의 물몬 이웃에 대하여 비난하기 시작하자 화를 내었다고 한다.

“그 물몬 전도사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달을 두고 목사님네 교회에서 사람을 구하려 찾았지마는 결국 그가 저의 집 지붕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 물몬 전도사가 혼자 일을 해주었지요.”

“그래요.” 목사가 대답하였다. “허지만 그가 얼마를 요구하던가요?”

“그 사람은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에는 돈을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리친스 부부를 그들의 집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였다. 리친스 부부는 그곳에서의 적개심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4개월 동안만 봉사하게 되었던 제임스타운의 최초의 선교사였다. 그러나 석달 동안 그들은 마을 안에 있는 모든 목사를 만났으며, 그들이 라디오 방송국 책임자 및 다른 마을의 지도자들과 우호적인 교류를 가져서 반물론 선전을 그치게 하였다.

리친스 부부의 성실한 생활 태도는 회원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제임스타운에서 가졌던 그들의 첫번째 주일학교에는 스물다섯 명 중 세 사람만이 그들과 악수를 하였다. 정확하게 1년 후에 약 아홉 명의 활동 회원이 생겼고 그들이 모두 악수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사람들의 복지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면 복음을 전파하기는 쉽지요.”라고 리친스 자매는 말한다.

봉사의 혜택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 그들의 생활이 보다 훌륭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선교사로서 받는 충분한 보상이다. 그러나 부부 선교사는 그들의 봉사로 인하여 오는 개인적인 축복에 대하여 간증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그들 가족에게 모범을 보이는 기회로 삼고 감사하게 여긴다. 솔트레이크시티의 버논스나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조부모로서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10명의 손자 손녀들이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반 애시 자매가 지금은 칠십인 제일정원회의 일원이신 당시의 선교부장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과 안내 접견을 가졌을 때 그녀는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몹시 떨리고 두렵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벨라드 장로님은 그녀에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하시며 친절하게 기초 연습을 시키셨다.

그후, 온테리오, 커틀랜드 레이크에서의 선교 사업 첫날, 남편 빌이 식료품상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잡화상 점원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시도하였다. 여자 점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애시자매가 로버트와 베티 더블류 길드 부부에게 첫번 토론을 가르친 후 로버트는 그의 동생 돈과 제수, 웨일라를 초대하여 함께 복음을 배우게 하였으며 잠시 후에 네 사람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친구와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의 그들의 영향력으로 적어도 12명이 더 침례받게 되었다.……이 모든 것은 애시자매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한 용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였다.

또 다른 축복은 24시간 동안 줄곧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물론 약간의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함께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영원한 반역자를 보며, 여러 시간 동안 함께 영적인 분위기에 참여하는 데서 얻는 기쁨에 대하여 많은 부부 선교사들이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부 선교사나 선교부 지도자들은 선교 사업이 여가 활용이나 은퇴

기념 휴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은퇴한 부부가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들은 만만치 않게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임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라고 피베가 장로는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누구도 낙담시켜서는 안된다고 선교 사업중 영적인 은사를 체험한 아이다호주 포카텔로의 딘 엠 장로와 마쉬 로이드 자매는 말하고 있다.

“우리는 정년 퇴직후 오랫동안 계획 하였던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즐겼습니다만 영적인 축복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로 한 우리의 결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목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울러 남편과 아내로서 더욱 가깝게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와 참된 동반자로서의 유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에게 후회가 아닌 새로운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저들이 젊었을 때 선교의 기회를 놓쳤으므로 이 선교 사업은 일생의 염원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데릭 장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교회의 모든 회원이 두 가지의 선교 사업을 모두 수행 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19세가 되었을 때 나갈 수 있는 선교 사업이고, 다음에는 은퇴한 후에 나가게 되는 부부 선교 사업입니다. 성인 생활을 통하여 은퇴 후에 수행할 선교 사업을 기다리고 계획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그들은 자신의 신체를 더욱 잘 보호할 것이고, 그들의 정신 상태도 더욱 향상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적인 힘도 강하여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 차례의 선교 사업만으로 멈출 것인가? 전 테네시 내쉬빌 선교부의 선교부장이었던 솔트레이크시티의 에머슨 티 캐논 부장은 그와 아내가 이번에는 다시 부부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될 때를 학수고대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부 선교사들이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그들처럼 사람들과 함께 온종일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타주 옥든의 조셉과 멜마 봉고메리는 부부로서 함께 두번째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첫날에 선교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버크너 선교부장님,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8개월 동안 선교 사업을 마치고 1979년 9월에 유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는 북송아, 배 그리고 토마토를 통조림할 적시이지요. 그런 다음에 1979년 성탄절 때쯤에서 세번째 선교사업을 나올 것입니다.” 부부 선교사 후보의 공통되는 질문

우리가 선교 사업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에이 디어더어 터를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해당 지역의 신권 지도자를 만나 여러분이 합당하며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성도의벗, 1978년 2월호)

그렇다면 선교사의 부름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일인가? “결코 아닙니다”라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칼로스 이 애시 장로는 말한다. “스스로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더라도 감독에게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파하

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쉽게 감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주된 임무가 아닙니다.”라고 애시 장로는 말한다. “사람들과 우정을 깊게 하고 그들과 접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부부 선교사는 복지 선교사로서 건강, 영양, 농사, 또는 직업 안내 등에서 회원을 도울 수도 있다.

어떤 부부는 방문자 센터에서 안내자로서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부부는 공보 역원으로서 또는 선교부 직원으로서 봉사하기도 한다.

복음 토론을 암기해야 하는가? 어떤 부부는 암기하기도 하지만 암기하지 않는 부부도 있다. “토론의 대략적인 개요를 알 수 있으니까 토론의 낱말 하나 하나를 외우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라고 애시 장로는 말한다. 선교사 훈련 센터에서는 복음의 개념과 대화술, 경진, 그리고 토론의 어휘 등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어 부부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 실제의 경험을 사용하여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준다.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게 되는가? 외국어를 공부하였거나, 능력이 있다면 감독에게 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부가 신청하거나 우리가 그들의 승락을 얻지 않는 한 부부를 외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라고 애시 장로는 말한다.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는 곳의 기후와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면 어떻게 하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쉽게 적응하게 된다. 워싱턴 주 쉰시사이드 출신의 제이 캐롤 장로

와 펄 에이 배글리 자매는 첫번째 선교 사업을 영국에서 수행하였고, 두번째로는 필리핀에서 수행하였다. 한 곳은 몹시 춥고 또 한 곳은 상당히 더운 지역이었다. “우리는 두 곳에서 병이 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라고 그들은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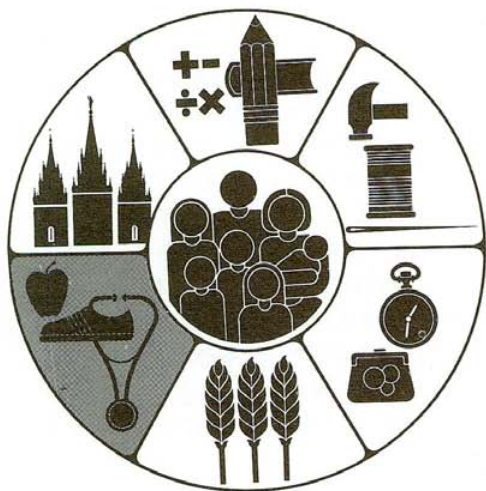
일반적인 건강은 어떻게 되는가? 건강은 감독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무난히 선교 사업을 해낸다. 아이다호주 아리모의 월노마 엘 암스트롱 자매는 어느 날 아침에 깨어 보니 심한 편두통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 에즈라와 계획했던 다섯번째 토론을 취소하고 싶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통증을 없애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였다.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두통은 사라졌답니다.”

유타주 드래퍼의 월마 리친스 자매는 그들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 일주일 동안 휠체어에서 생활하였다. 그녀는 아프고 통증이 계속되었지만은 그러나 선교 지역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려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지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 다하였을 때 주님은 더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피네가 장로는 부부 선교사는 봉사하기에 충분한 건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젊은 복음 선교사들과 똑같은 일과표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부장이 그들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동반자이며 영원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덧붙이신다.

*

의사를 부르기 전에



수제인 댄도이

가족이 병이 났을 때, 의사를 부르기 전에 먼저 환자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발견한 사항을 기록해 놓는다. 증상을 완전히 살펴 보지도 않고 당장 의사에게로 달려갈 때 우리는 중요한 증세를 놓치기 쉽다. 증상은 환자가 말하는 통증을 느낀다거나, 뻣뻣해짐을 느낀다거나, 호흡이 곤란하다거나, 기운이 없다는 등등의 것이므로 병의 증세란 관찰자가 탐지해 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상, 곧 고열, 출혈, 또는 열꽃 등이 그것이다.

증상과 증세를 요령있게 기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검표를 쓸 수 있다.

통 증

- 위치
- 유형 (막연한 통증, 예리한 통증, 쏘는 듯한 통증)
- 기간 (지속적이다. 간헐적이다)
- 몸의 위치를 바꿀 때 느끼는가?
- 먹고 나서 통증을 느끼는가?

체 온

- 체온계에 나타난 실제의 체온

맥 박

- 1분간의 맥박 수
- 1분간의 호흡 수
- 호흡이 곤란한 것 같은가?
- 기침을 하는가?

출 혈

- 위치
- 색 (선혈, 물이 섞인 색)
- 양 (계속 흐름, 간헐적으로 흐름, 스며 나옴)

신체의 배설물

- 대변, 토물, 침, 소변, 또는 그 밖의 배설물의 색이나 외형의 변화 (배설물이 눈에 띄이게 이상할 경우,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의사에게 가져가 조사한다.).

피 부

- 일반적인 외형 (붉다. 땀이 난다. 창백하다. 황색이다)
- 부분적으로 붉은 반점이 있거나 탈색된 부분이 있는가?
- 열꽃 (위치와 상태에 대한 묘사)

기 타

- [] 환자가 아파 보이는가?
- [] 기분이 어떻다고 말하는가? (기운이 없다. 피곤하다.)
- [] 병이 난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 [] 밤맛을 잃었는가?

이상의 증상과 증상 이외에,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응급 처치 또는 치료를 하였으며, 환자가 어떠한 약물 치료를 받았는지를 물을 것이다.

환자의 상태에 관하여 완전한 보고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은 의사로 하여금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하고 환자의 조기 치료를 돕게 되는 것이다.

열이란 무엇인가? 체온이 오르지 않고도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열은 신체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세이다. 체온의 변화는 그 사람이 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진단, 그 질병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환자의 회복 과정에 대한 표시 등의 기도로써 여러 해 동안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병이 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의 하나가 “열이 몇도입니까?”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에서는 임상용 체온계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과 보관법을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체온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재어야 한다.

1. 아프다고 말하거나 병의 징후가 보일 때.
2. 병에 걸려 있는 중에는 매일 같은 시간, 대부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체온을 재거나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체온을 재는다. (환자의 상태와 연령에 따라서 체온을 매 4시간마다 잴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재는 수도 있다.)

3. 환자의 상태에서 오한, 불안 또는 통증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때.

4. 두통 또는 가슴이나 복부의 통증, 목구멍이 아픈 증상, 오한, 토사, 또는 피부 발진 등의 증세가 생길 때,

잠자고 있는 환자를 깨워서 체온을 재서는 안된다. 환자가 온수 또는 냉수 목욕을 할 때나 더운 음식 또는 찬 음식을 먹을 때 체온을 재는 시간은 적어도 15분간의 시간 여유를 준 후에 재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의 입안의 온도는 정상시의 체온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어리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비교적 평온하게 쉬고 있을 때 체온을 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체온을 재는 방법과 체온계 읽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 이외에 체온에 대한 약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인의 경우 섭씨 37°8' 이상은 열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유아의 경우 섭씨 38°3' 이상은 열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각 사람마다 24시간 동안 체온상의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 보통이나, 일반적으로 이른 아침에는 체온이 가장 낮고 오후 늦게는 약간 상승하는 것이 보통이다.

열 자체가 병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열은 병의 신호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신호는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열은 전혀 없으면서 심하게 앓을 수도 있다. 열이 없으면서도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의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자녀가 39°4'에서 40°까지 열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열의 높낮이가 항상 환자의 병의 경중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3개월 미

만의 유아에게 있어서 열이 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같은 열이라도 유아의 열은 나이가 든 어린이의 경우보다 훨씬 위험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때때로 의사는 열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병 자체를 치료하는 데에만 신경을 쓴다. 이는 열이란 몸이 병과 싸우는 데 발생하는 부수물이기 때문이다. 열은 또한 의사가 병의 차도를 측정하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환자가 고열로 인하여 잠을 잘 수 없거나 기진해지는 경우에는 의사는 열을 내리는데 힘쓸 것이다.

가정 삼비약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품만을 약품으로 여기고 있지만 많은 가정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약도 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약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서 병이 난 가족 또는 상처입은 가족이 곧 가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한밤중이나 또는 약국에 갈 수 없는 때에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는 많다.

다음 사항의 가정 삼비약품이 비치되어 있으면, 가족이 병이 났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 [] 어린이용 아스피린을 포함한 아스피린
- [] 코막힌 것을 뚫어 주는 약(물약 또는 스프레이)
- [] 기침약
- [] 편도선약
- [] 감염된 피부를 위한 항생물질의 연고
- [] 외세린
- [] 화상 연고 또는 진통제 스프레이

- [] 항히스타민제 정제 또는 캡슐
- [] 태양으로부터의 피부 보호 크림 또는 로션

처방된 약품과 마찬가지로 위의 모든 물질에서 색이 변하였거나 모양이나 냄새가 변하였을 경우에는 버려야 한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모든 약품은 잠글 수 있는 장 속에 넣어 두어야 한다. 또한 독성이 함유되어 있는 약에는 병에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약품 이외에도 가정에서는 종종 급히 필요로 하게 되는 다음의 것을 비치해 두어야 한다.

- [] 체온계(구강용 및 직장용)
- [] 메칠 알코홀(7%)
- [] 항박테리아 비누(배인 상처, 까칠 상처를 닦기 위하여)
- [] 탈지면 및 면봉
-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에는 의사와 상의한 후에 사용한다.
- [] 일회용 반창고
- [] 반창고($1\frac{1}{4}$ 센티 또는 $2\frac{1}{2}$ 센티 너비)
- [] 여러 가지 크기의 소독 가제
- [] 가위
- [] 핀셋
- [] 입 안을 볼 때 혀를 누르는 쇠막대
- [] 소형 구급법 책자.

이상의 모든 물품은 가족 모두가 아는 곳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적당한 약품과 물품이 비치되어 있을 때 가족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병이나 상처를 다룰 수 있게 된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 *

수제인 덴도이 의학 박사
아리조나주 보건소
소장 대리



부모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첫번째 그리고 가장 훌륭한 교사이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훌륭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책임감있는 부모의 훌륭한 영향력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의 도움을 받은 한 어린 소년이 후에 실로 위대한 사람이 되어 그의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퇴역 장성이며 애국자인 한 분이 이 유명한 사람의 유년기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 소년이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그의 부모로부터 좋은 가르침과 인도를 받았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가르쳤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몇 가지 규율을 외우고 지키게 하여 그가 봉사의 의롭고 건전한 생활로 살아 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규율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과만 교제한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하지 않는다.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인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경건하게 말한다

누구에게든 욕하지 않는다.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을 건책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한다.

놀이를 할 때에는 죄스럽지 않게 남자답게 한다.

자신을 과시하려 노력하지 않는다.

장난으로라도 해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

정숙한 옷차림을 한다.

성취한 업적을 뽐내지 않는다.

좋은 이유에서가 아니면 큰 소리로나 또는 전혀 웃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한 번에 입에 너무 많이 넣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는다.

부탁받지 않은 한 충고를 주지 않는다.

손님에게 먼저 봉사한다

입에 음식을 넣은 채 말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자세를 똑바로 갖는다.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소년의 문장과 행동은 그가 일생을 이같은 규율을 따랐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우리 어린이가 여러분이 모두 모든 나라의 고귀한 사람들의 모범을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

몰론경 퀴즈

나는 누구일까요?



② 나는 놋쇠판을 얻기 위하여 세 형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의 형들은 모두 두려워하였으나 나는 주님께서는 그가 명하신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③ 내가 15살이었을 때 나는 주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니파이 군대의 대장이었으나 백성들이 사악해져서 더 이상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나는 금판을 만들고 니파이 큰판을 요약하여 내 아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는 아내와 네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천막 문 앞에 놋쇠로 된 공이 있었습니다. 이 “리아호나”는 광야를 여행하고, 대양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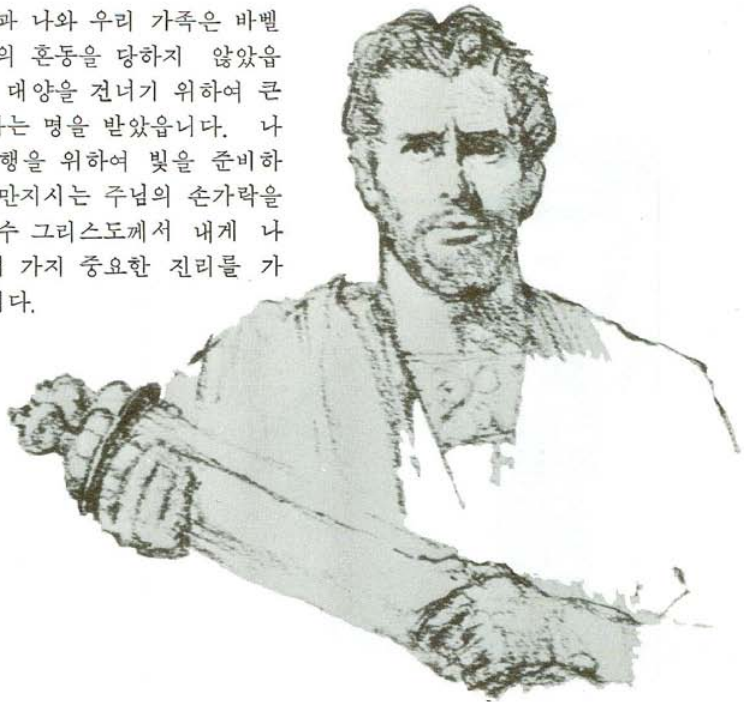


④ 나는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백성에게 전하는 최후의 연설을 높은 탑에서 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⑤ 나는 이천 명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레이맨인들과 대항하는 전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으며, 이천 명 중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았읍니다.



⑥ 나의 형과 나와 우리 가족은 바벨탑 때에 언어의 혼동을 당하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대양을 건너기 위하여 큰 배를 준비하라는 명을 받았읍니다. 나는 우리의 여행을 위하여 빛을 준비하고자 물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가락을 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읍니다.



⑦ 나는 부친으로부터 내 민족의 기록을 받았읍니다. 나는 판에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그 판을 구모라 언덕에 물었읍니다. 1827년 9월 22일 나는 이 판들을 요셉 스미스에게 주었읍니다.

- 해답 ① 리하이 ② 니파이 ③ 물 몬 ④ 베냐민 왕 ⑤ 힐라멘 ⑥ 아렛의 형제
⑦ 모로나이 ⑧ 레이맨인 사무엘 ⑨ 아들 엘마 ⑩ 엠몬

⑧ 나는 벽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의 표적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이 악한 니파이인은 레이먼인 예언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⑨ 나의 부친은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나와 나의 친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을 쫓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천사가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후에 우리는 선교사로서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⑩ 나는 제이라헤물라로부터 일단의 사람을 이끌고 리하이—니파이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그땅의 백성의 지도자인 림하이 왕 앞으로 끌려 나갔으며, 그는 나에게 스물 녀 장의 금판을 보여 주었는데 판에는 그 백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판을 모사이야 왕에게 가져 갔으며, 그가 판의 기록을 번역하였습니다. *



땅 도둑

마지리 에스 캐논과 루렌 지 윌킨슨

요셉이 쟁기로 갈색의 깊은 고랑을 내며 가는 뒤를 여섯 살난 캐드린은 노래를 부르며 따라 가면서 새로 일군 밭 고랑에 노란 옥수수 씨를 떨어뜨렸다.

요셉이 어깨 너머로 이렇게 말하였다.

“앨빈이 돈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면 옥수수는 모두 토지 매매 업자에게로 가게 돼 그렇게 되면 그들은 벌레 한 마리 안남기고 모두 가져간대.”

캐드린은 언젠가 아빠가 토지 매매 업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마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토지 매매 업자가 뭐야, 오빠?” 하고 캐드린이 물었다.

캐드린의 오빠는 황소를 잡아당겨 멈추게 하고는 설명하였다. “토지 매매 업자란 땅을 매매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만일 곡식을 수확하지 못했거나 팔지 못해서 저당금을 갚지 못하면 그들이 와서 땅을 가져 가는 거야.” 그리고 오빠는 그의 가족이 곡식을 심기 위하

여 처음으로 임야를 개간할 때 아버지께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말을 끊었다.

지난 봄에 온 가족은 천여 그루의 단풍 당밀 나무를 베어 내는 일을 도왔다. 조셉은 아버지가 농장의 땅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팔려고 만드셨던 나무의자며, 바구니며 짚단 빗자루 등을 생각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하여 남의 농장에 가서 일을 해주기도 하셨다. 그래도 여전히 돈은 모자랐다.

캐드린의 말이 오빠를 상념으로부터 뒤흔쳐 나오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우리 농장을 가져 갈꺼야, 오빠?”

“우리가 돈을 좀더 마련하지 못하면 그럴꺼야. 우리는 할 만큼 했지만 아직 돈이 모자라.” 요셉은 황소 엉덩이를 채적으로 때리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뭔가 좀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오빠는 나무도 베고, 땅도 갈고 옥수수도 심고 호박도 심었잖아, 그것만도 많이 일한건데 뭐.” “그렇긴 하지만

돈이 더 필요하잖니.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단말야.”

캐드린은 깊은 숨을 몰아 쉬고는 갈 아엎은 검은 흙 위에 앉았다. “우리 농장을 토지 매매업자들에게 내주게 될까?” 캐드린이 물었다

“땅값을 치를 수 없으면 그렇게 해야 돼. 법적으로 그들이 유리하니까, 하지만 24헥타아르나 되는 땅의 나무를 베고 곡식을 심고 계다가 방이 넷이나 되는 통나무집을 지으면서 이년 동안이나 일을 한 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 같아. 그들은 한 번 돌아보고는 다시 웃돈을 많이 없어서 팔게 될테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꾸어 놓은 것에 대하여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되지.”

이제야 캐드린은 사람들이 토지 매매업자들을 가리켜 땅도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린 요셉은 열려진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 보았다. 어머니가 화롯가에서 냄비의 뚜껑을 막 열고 계셨다. 어머니는 스튜가 냄비 뚜껑 위로 끓어 오르는 것을 그대로 두고 가족에게 “저녁 다 되었다!”고 소리치셨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여느 때와 같이 요셉의 아버지는 그의 안경을 찾으셨다. 그가 조끼 오른쪽 아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안경을 꺼내는 것은 성경 읽기와 가족 기도의 신호였다.

그날 밤 가족은 특별히 긴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돈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하였다. 가족이 모두 아멘한 후에 그들은 늘 하던대로 같이 찬송을 불렀다.

찬송은 크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요셉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는 길 아래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고맙네 요셉, 자네 아들들 중에서 며칠 동안만 우리 집에서 일을 해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 보려고 왔어. 우물을 파려고 말이네.”

앨빈은 일하러 나가 있었고, 하이람은 아버지가 나무 베는 일에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어린 요셉은 알고 있었다. “제가 할 수 있어요.”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요셉이 할 수 있네. 하루 품삯에 충분한 일을 해줄 걸세.”

“자네 아들들이야 일 잘한다는 걸 나도 아는 터이지. 아버지 옆에서 일을 배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나? 요셉이라면 좋아.”

요셉은 너무 기뻐서 크게 소리지르고 싶은 것을 참기 위하여 숨을 크게 들이 마셔야 했다. “주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신다. 우리는 필요한 돈을 얻게 될꺼야. 나는 그걸 확신한다.” 그는 그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며칠 후 앨빈이 그가 번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온 가족이 모여서 그들이 모은 돈을 세는 순간은 긴장의 순간이었다. 돈이 충분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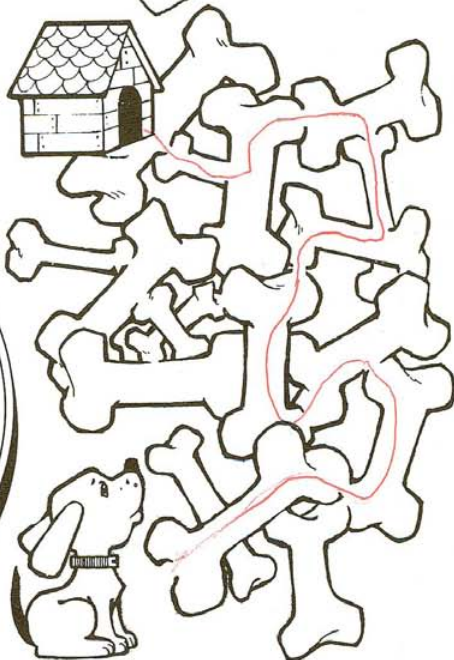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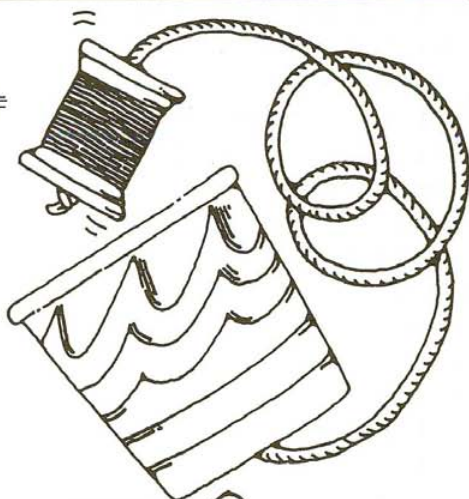
돈을 셀 때 요셉은 숨을 죽였다. 충분한 돈이었다. 요셉과 다른 사람들이 번 돈에 앨빈이 번 돈을 합한 것으로 그들의 농장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눈물과 웃음이 한데 뒤범벅이 되었다.

*



심심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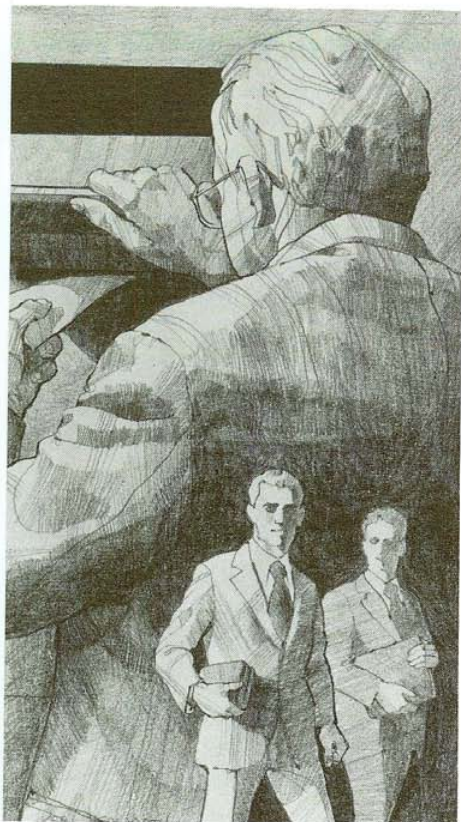
이 놀이는 혼자서 해도 되고 친구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이다. 큰 종이 컵 하나와 실패와 60센티 길이의 끈 하나가 있으면 된다. 종이 컵 바닥에 구멍을 뚫고 끈을 구멍에 끼워 컵 반쪽으로 매듭을 맨다. 끈의 다른 한쪽 끝에 실패를 매어 단다. 놀이 방법은, 한 손으로 컵을 쥐고 실패가 밑으로 퍼지게 해 놓는다. 재빨리 팔을 위로 올려 실패를 공중으로 띄워서 컵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아, 바로 그게 내가 말하는 미끼야!

길찾기
비벌리 존스톤

가엾은 강아지가 미로를 통해서 집까지 가야 합니다. 도와 주세요.



모든 규율을 지킴

에이치 켄트 레플레이

반듯이 누워서 X-레이 기계의 부속품들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언어 훈련 선교부에서 겪어낼 것으로는 조금도 예측하지 않았던 경험이었다. 그러나 오른쪽 발목이 부어 올라 나는 그곳에 그렇게 누워 있었다. 체육 시간의 또 하나의 부상자였던 것이었다

십분 전만 해도 나는 신나는 축구 경

기에 뛰어 들어 한참 열을 올리고 있었다. 게임 종료 1분전이었고 우리 지방부가 앞서고 있었다. 갑자기 우리 팀의 수비가 약해지면서 상대팀의 볼이 골을 향하여 쏠살같이 들어 오는 것이었다. 나는 상대팀에서 뛰고 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듀란 장로에게로 돌진했다. 그는 나를 막으려고 몸으로 태클해 왔다. 지끈! 마치 타올에 썬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움찔하였다. 나는 오른쪽 다리를 붙들고 바닥에 덩굴면서 의사를 부르라고 소리질렀다.

나는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다리의 통증으로 그곳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를 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구급차가 왔고, 곧 나는, 발목이 빠졌거나 탈골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X-레이 테이블에 눕혀졌다. 그러나 조금 열려진 문틈으로 들려오는 간호원의 “저렇게 심하게 뼈가 부러진 것은 처음 보았어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기적을 바라던 나의 소망은 산산 조각이 났다.

45분 동안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 다음 전문의가 도착하여 간호원이 나의 발목에 대하여 했던 말을 확인하였다. 오후 11시경에 나는 발목에 힘줄을 삽입하는 수술에서 아직 덜 깨어난 몽롱한 상태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속한 그룹의 다른 21명의 장로들은 두 주일만 있으면 모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선교부로 떠날텐데 나 혼자 남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 뿐이었다.

병원에 나올 동안 입원한 후에 나는 목발을 짚고 언어 훈련 선교부로 돌아왔다. 공부해야 할 모든 토론을 다 암

기하고도 다섯 주를 더 그 곳에 머물러야 하는 심정을 말로 표현할 길이 있지. 나는 앞에서부터 말할 수도 있었고 거꾸로도 말할 수 있었으며, 잠잘 때나 목욕할 때나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나 휴식시간에나 언제든지 외울 수 있었다.

한 선교사 그룹이 내가 기브스를 베낸 4일 후에 파테말라로 떠날 계획이었으나 나는 아직도 두 주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선교사만이 가진 간절한 설득의 힘으로 나의 주치의는 처음 몇 주 동안 무리하게 걸지 않는 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주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나의 흥분은 내 뼈가 거의 완치되었다는 증거였을 것이다. 비행장에 도착하였을 때 나의 기백은 하늘을 찔렀다. 내 발목이 완전히 나았음을 보이기 위하여 나는 한 발로 경충경충 뛰고, 춤추며, 모든 사람들에게 20센티 가량의 흉터를 보여 주기까지 하였다.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나 나의 익살은 나의 어머니의 근심스런 표정을 지워 드렸고 친구들로부터 “조금도 변하지 않았군”이라는 말을 하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고 시끄럽게 떠드는 중에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권고의 말이나 충고를 조금도 주의깊게 듣지 않았다. 나의 눈에 비치는 것은 제트 여객기가 문 옆으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과 파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나라 전체가 개종하는 영상 뿐이었다.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하라는 신호가 왔다. 마지막 순간의 빠른 포옹과 입맞춤(나의 부모와 누이들로부터의)이 있었

고, 물론 울음을 억지로 참는 아름다운 여인과의 특별한 악수도 있었다.

내가 탑승구역으로 가는 문에 가까이 갔을 때 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모든 규율을 지키거라. 그러면 네 일생이 행복하게 된다.” 나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죠 아버지”라고 말하고는 떠났다. 나는 비행기로 걸어 들어가면서 속으로 웃었다. “아버지 말씀을 잘못하셨습니다. 모든 규율을 지키거라. 그러면 네 선교사 생활이 행복하게 된다”는 말씀이 시겠지요.”라고 하며 나는 그 권고를 “부모의 권고”로서 정리하였다.

7개월 후에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의 선교부장이 내게 비극의 비행기 사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후 처음 몇 시간 동안, 나는 내 자신이 한쪽 어깨에는 악마가 있고 다른 한쪽 어깨에는 천사가 있는 만화의 주인공과 같다고 느꼈다. 악마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 여기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 네가 이야기하는 죽은 다음의 생명이란 모두 참이 아니다. 네가 선교사로 나온 후 무슨 일들이 일어났느냐? 너는 발목을 부러뜨렸고, 병원에 갔고, 사람도 풍습도 모두 다른 이상한 외국에 왔으며, 네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것이 네 인생의 가장 행복한 2년이구나. 집에서 3,200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에 너는 혼자 있는 것이다.”

그같은 생각은 결코 해보지 않았던 낯선 생각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거기 있었다.

다른 어깨에 있는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담대하거라, 장로여. 너는 자랑

스러운 아버지를 가졌었다. 그는 매사에 있어서 너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강한 축복사이셨다. 너는 영생이 복음의 참된 원리임을 알고 있으며, 또한 네 아버지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울줄 알게 된 때 이래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다.”

희의와 현실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을 때 공황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나의 머리를 울렸다. “얘야, 모든 규율을 지키거라. 그러면 네 일생이 행복하게 된다.” 아버지는 결코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남은 일생의 지포가 되도록 주신 영감받은 권고의 말씀이셨다. 나의 아버지는 그가 가르치신 대로 사신 분이셨다. 아버지의 사망이 있는 지 몇 주일이 지났을 때 아버지의 일생에 대한 온전한 간증이 나에게 밝혀졌다.

재정이 큰 문제가 되었다. 내게는 남은 15개월중 11개월간의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돈만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고 어머니에게 남은 4개월의 선교 사업을 뒷바라지 해줄 돈이 있기를 바랐다. 대학을 가려는 계획은 희망이요 꿈으로 변해 버렸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선교사를 돌보아 주신다.

나는 더 이상 재정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편지를 어머니로부터 받았다. 어떤 사람이 나의 감독에게 찾아와서 그가 나의 남은 선교 사업을 재정 면에서 돕겠다고 자청하였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교회에는 마음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다른 점은 그 사람이 나의 감독에게 한 말이었다. “나는 이 교회 회원이 아닙

니다. 그러나 호레이스 레플레이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의 아들의 남은 선교 사업을 보조해 주고 싶습니다.” 그는 그가 한 말을 지켰다. 15개월 동안 돈은 정기적으로 은행 계좌에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에 의하여 예치되었다.

지금까지도 그는 익명으로 남아 있다. 나의 아버지의 순종의 일생은 그가 돌아간 이후에도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아버지의 사망은 나의 선교 사업의 절정이 되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겠다. 물론 나는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 계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래로 나의 선교 사업은 아버지의 일생에 대한 살아 있는 간증이 되었다. 나는 곧 “모든 규율대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규율 일지라도 그것을 지킬 때 나는 행복을 느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성 130 : 20—21)

이 경전의 말씀은 진실이다. 내가 낙담에 빠졌거나 우울해 있을 때 오래히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것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한 때 나의 머리 속에는 다음의 위로의 음성이 울리게 된다. “얘야, 모든 규율을 지키거라. 그러면 네 일생이 행복하게 된다.” *



여러분의 장점을 발견했습니까?

관리 감독단 제1보좌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 누가 알아줄까? 내가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나는 실제로 어떤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는가? 끈궁한 사람을 도와 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나는 별로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도와 주지 않아도, 누군가 와서 나보다 더 잘해 주겠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이며, 특별하거나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특별한 사명도 맡기시지 않고 우연히 이 지상에 보내시게 된 것이리라고 일순간이나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속성과 재능과 가능성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능을 가졌거나 적어도 다른 재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학교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구를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더 뚱뚱한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존잘기만 해도, 아니면 앤이라면, 무언가 멋지고, 남이 알아주는 일을 할 수 있을텐데, 그러면 모두 다 나와 갈아지기를 원할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작은 일로 위대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평범한 교회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선교사 동반자 한 선교사가 목발을 짚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자전거 사고로 무릎을 다쳐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선교사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자기 동반자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 동반자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배웠다는 것을 말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2, 3 주일 전에 그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교부장은 그를 전근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전거도 탈 수 없는 데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동반자는 선교부장에게 그를 전근시키지 말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는 능력을 상실한 자기 동반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선교부장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후 목발을 짚은 장로는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동반자는 자신의 자전거를 그의 자전거에 연결시켜 2주일 동안 그를 끌고 다

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사랑 또는 헌신, 노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생활에는 결여되어 있는 그 무엇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찾아 내어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지 여러분은 결코 모르고 있습니다.

부러진 목 미국 서부의 한 도시에 사는 어느 청년이 18년 동안이나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는 가슴이 부풀었고 그의 부모와 애인까지도 그랬으며 이제 그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몇명의 친구들과 함께 시립 수영장에 가서 높은 다이빙대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가 수면에 닿는 순간, 그는 자신이 각도를 잘못 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의 머리는 물 속을 그대로 뚫고 들어가 밑바닥에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심한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물가로 조심스럽게 끌려 나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수 주일 동안이나 치료를 받았으나, 그는 결국 목 아래쪽이 영영 마비가 되리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영원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고,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그의 영혼도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감독님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청년의 부모와 의사와 대화를 가진 후 그에게 하나의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고 비 현실적이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임무는 그 와드에서 선교사나 군인으로 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써 주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감독이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영감을 받아서 한 일일까요? 손이나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글을 쓸 수 있

겠습니까? 그와 같이 딱한 상황에서는 발가락으로 글을 쓰게 된 사람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는 발가락조차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감독을 신뢰하고 있는 그 청년과 부모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실의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며칠이고 몇 주일이고, 몇 달씩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을 이로 물고 머리를 움직여, 그는 부호를 찍을 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낱말을, 그 다음에는 하나의 문장을 적고 결국은 한 페이지나 되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글을 쓰고 또 썼습니다.

20여년 동안 그는 아름다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지도자의 충고에 따르려 노력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귀한 세대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고귀한 세대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지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아무도 여러분보다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항상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양보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여로에 함께 동반하시어 이 지상에서 여러분이 맡은 특별한 목적을 깨달도록 영감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



초 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방문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문을 열어 보니 놀랍게도 이웃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던 두 명의 선교사가 서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집 아들들을 만나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14세와 15세 밖에 되지 않아 이 시간이면 한참 잠잔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서로 마주 보더니 선임 동반자가 용기를 내어 내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과 같은 반 친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동에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부탁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린 구도자들에게서 우리 집 아이들이 교회 회원인데 그들에게서



모범의 힘

찰즈 에이 디데이 장르

칠십인 제일 정원회



무언가 좀 색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상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아들들이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러한 목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다고 선교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장로들을 보내고 문을 닫는 순간 내 마음속에 문득 경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선교사들과 모임을 가질 때 가끔 인용했던 구절이었습니다. “가서……훌륭한 모범을 저들에게 보여, 내 말을 이루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 도구로 삼아 많은 영육을 구원하리라”(엘마서 17:11)

내가 선교사들과 친해온 지도 어린 30여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생활에 얼마나 훌륭한 모범과 기쁨을 보여 주었는지.

내가 처음으로 그들을 만났을 때가 열여섯 살 때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어

릴적인 여름이면 어머니와 함께 창가에 앉아서 우리 집 앞의 언덕 위로 걸어들어오는 이웃 사람이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두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젊은이들과는 좀 색다른 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더운 날씨였음에도 그들은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관으로 보아 그들이 미국인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이튿날 그들은 우리 집으로 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호기심에 가득 차 달려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러 들이자, 이내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이야기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미소, 사랑, 열성 그리고 봉사하고 돕겠다는 소망, 계명에 순종하는 태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더 그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디안과 물몬경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던 예술과 스포츠에 대한 재능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정도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로부터 벌써 3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 훌륭한 젊은이들이 보여준 모범으로 나의 인생과 인생에 대한 안목도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자를 따르며, 그의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시작하신

영원한 사슬이 끊어지지 않게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요,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니파이삼서 27:21)

교회의 청소년 여러분이 보여 주시는 영향력과 모범은 다른 사람을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로 개종시키느냐 아니면 흥미를 갖지 않게 하느냐 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스스로의 외모와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이 바로 선교사로 부름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속히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데는 어릴수록 좋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된 행위는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인품이 되며, 인품은 곧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결정짓게 되는 것은 우리의 운명만이 아니며 우리 이웃과 친구들의 운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집의 두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선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우리 아들과 같은 나이였을 때, 모범을 보여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참으로 요셉 스미스는 위대한 신앙의 표본이며 오늘날의 교회의 전령은 그러한 신앙의 산물인 것입니다.

모범의 힘은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개종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를 거룩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

변명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하라.

아치 엠 부르거

베트남에서 TET 공격이 한창 절정에 달하여 있을 때 나는 한국으로 가라는 전속 명령을 받았다. 미군과 연합군의 직업 군인 군의관의 총책임자로 임명된 것이다. 나의 새로운 근무처에서 일을 한 지 한 달 가량 되었을 때, 내가 매일 대하고 있는 군인들과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 간호원이 같은 부대로 배속되어 왔다.

어느 날 그가 나와 단 둘이 만나기를 청하여 내게 이렇게 말하였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대령님, 제가 면밀하게 조사해 본 바, 이 부대 전체에서 순결을 지킨 사람은 여섯 명 밖에 안됩니다. 대령님은 그 중의 한 분이시며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 저는 순결한 상태로 아내와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대령님은 계속 순결을 지킬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의 당돌한 질문에 나는 약간 놀랐으나 나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입장에 섰던 때가 있었고 내가 이 극동 지역으로 오기 이미 오래

전에 나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그리고 영원히 순결을 지킬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유혹받을 수 있는 입장에 나 자신을 허락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술을 마셔서 정신이 혼미해진 적도 없었다고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다음 나는 비번인 시간에 가질 수 있는 교회와 관계되는 활동에 대한 나의 간증을 전하였으며, 그러한 활동은 유익한 방법으로 나를 분주하게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젊은이가 그의 아내를 매우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가 그의 순결을 잃을 경우 그 다음에 아내에게 쓰는 편지에 은연중에 알려질 것이고 그들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나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우리는 모두 순결치 못한 친구들의 생활에서 그러한 현상을 보아온 것이다. 우리는 서로 약속을 맺었다. 그는 내가 나의 순결을 지키는 한 자기도 순결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는 이같은 약속에 다른 사람들도 가입시키려 노력하였으나 아무도 우리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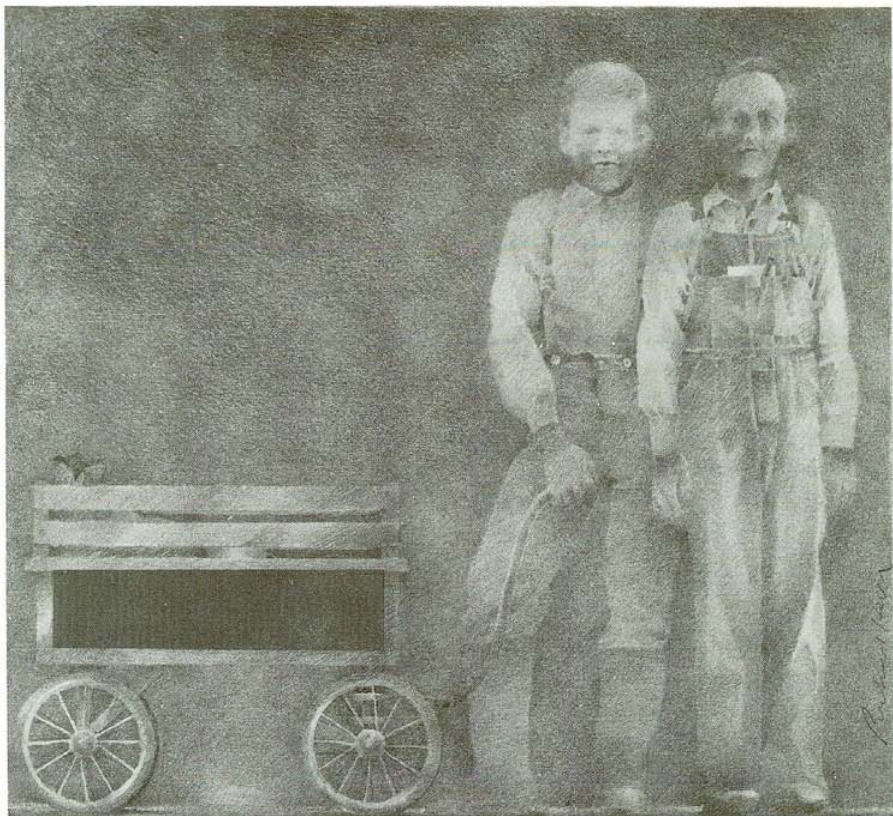
두 달 가량이 지난 후 그가 나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령님” 그가 말하였다.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네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후 얼마 안되어 그는 다시 와서 그 수가 셋으로 줄었다고 말해 주었다.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기 며칠 전에 그가 다시 와서, “이제 대령님과 저 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내가 그에게 계속 지키겠느냐고 묻자 그는 “물론

이지요”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나의 젊은 친구는 아내를 만나려면 아직 한 달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우리는 자주 복음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우리의 우정은 두터워졌다. 내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우리는 모두 울었다. 그도 지금까지 그가 쌓아 온 행복을 저해하게 될 행동을 남은 한 달 동안에 결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친구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으나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한 투쟁을 요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기꺼이 필요한 노력을 감수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에 대하여 알고 있어서 자기가 약해질 때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늘 겸손한 태도로 임하였다.

구세주께서도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와 비슷한 관계를 갖고자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의 계명에 기초를 두고 목표를 높게 설정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계획하고 기도으로써 정기적으로 그와 함께 우리의 목표를 검토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우리 부대의 다른 많은 군인들도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생각은 하였다. 그러나 이 젊은 친구와 나만이 성공하였으며, 그렇게 될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약해지는 순간에 쓰러지고 만 것이었고 우리는 사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계획함으로써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였다. *



이십세기 초에 집사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현대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마차에 가득 실은 금식 헌물

크리스 젠슨

집사에 성임된 지 10분도 못되어 나는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 나는 감독님과 보좌 한 사람 그리고

집사 고문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성임을 받았다. 성임이 끝나자 모든 형제들이 나를 축하해 주며 각

기 충고의 말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집사 고문은 아무 조언을 주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에게 집사로서의 최초의 임무를 주어야겠군. 다음 토요일에 프레드 에드워드 형제와 함께 금식 헌물을 모아 오도록, 아침 10시에 퍼슨 형제 댁에서 프레드를 만나, 놀지 않고 부지런히 하면 정오에는 다 마치게 될 거야.”

그런 다음 우리는 복도로 걸어 나와 집사반으로 들어갔다. 그 당시에는 신권회가 월요일 저녁때 열렸었다. 모임이 끝난 후 나는 흥분에 싸여 부지런히 집으로 뛰어 와서 내가 받은 첫번째 임무에 대하여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즉시 준비하기 시작하셨다. “옷장에서 흰 셔츠를 꺼내 오거라. 토요일에 입을 수 있게 빨아서 대려 놓아야겠다. 지난 주에 산 새 옷을 그날 입으려므나. 토요일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일요일에 신는 구두를 신어도 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찍이나 긴 것 같이 생각되었다. 한편으로는 그날을 몹시 기다리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였다. 회원들이 내가 금식 헌물을 요청할 때 구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기를 바랬다.

당시의 금식 헌물(또는 십일조)은 돈보다는 대부분이 물건이었다. 계란, 버터, 밀가루, 빵, 야채 등등 회원들이 재배했거나 만들었거나 생산한 물품들을 바쳤다. 이러한 헌물, 헌금은 감독의 창고라고 알려진 중앙 창고로 모여져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

퍼슨 형제의 집은 집에서 오백미터 정도의 가까운 곳이었으며, 나는 10시까지 그곳에 가면 되었지만, 어머니는

토요일에 나를 7시에 깨워 주셨다. 먼저, 나는 대개는 저녁에 하는 목욕을 하였다. 목욕이 끝나자 어머니는 구두를 깨끗이 닦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떠나기 직전까지 그 구두나 새 옷을 신고 입게 하지 않으셨다. 땀뻑하게 풀먹인 흰 셔츠, 새 양복 그리고 꼭 맞는 일요일에 신는 구두를 모두 입고 신었을 때 나는 이제 가도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벅타이를 매도록 하셨다.

군대에서의 검열이라도 그날 어머니께서 나를 검열하신 것보다 더 엄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내 귀를 잡아 당겨 귓속과 밖을 모두 조사하셨고, 내 머리를 몇 번이고 손으로 쓸어 주셨다. 어머니가 내 이를 검사하실 때 나는 억지 웃음을 한참이나 짓고 있어야 했다.

“양복 조심하거라” 내가 문밖으로 나가려 할 때 어머니가 주의를 주셨다. “양복에 밀가루를 묻히면 안된다. 사람들에게 공손히 대해 금식 헌물을 달라고 할 때, ‘주시겠어요?’라고 하지 말고 ‘주시면 고맙습니다’라고 반드시 인사해야 한다. 누가 너보고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모자를 벗고 머리를 다시 빗거라. 그리고 술쪄자매님이 집에 계시면 자매님을 도와드릴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거라. 12시에는 돌아올 수 있게 서둘러야 한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퍼슨 형제 댁에 갔을 때 프레드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우리가 금식 헌물을 실을 “급행 마차”를 가지고 왔다. 퍼슨 형제님은 우리를 집안으로 들어서 프레드에게 줄이 쳐진 공책, 빈 밀가루 자루 하나, 그리고 커다란 양철

컵을 주셨다. “이것은 계량컵이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밀가루를 현물로 바칠거야. 이 컵이 정확하게 두 파운드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가루를 이 컵으로 하나 가득 채워 주면 너희들은 이것을 자루에 넣고 공책에 밀가루 두 파운드라고 적어야 한다. 다른 것들,

버터나 계란과 같은 것들을 주면 그 양을 적어야 한다. 사람들이 집에 있는지 없든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오늘 집에 없는 사람은 다음 번에 두 달 분의 현물을 내게 될거야.”

프레드는 공책과 연필을 그의 셔츠 주머니에 넣고, 빈 밀가루 자루를 마차

뻗뻗하게 풀먹인 흰 셔츠
새 양복 그리고 꼭 맞는
일요일에 신는 구두를
모두 입고 신었을 때
나는 이제 가도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넥타이를
매도록 하셨다.
군대에서의 검열이라도
그날 어머니께서
나를 검열하신 것보다
더 엄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에 실었다. 프레드가 나보다 선배였기 때문에(그는 나보다 4개월 먼저 집사가 되었다) 내가 마차를 끌어야 했다.

첫번째로 찾아간 집은 존슨 형제의 집에서 이백미터 정도 떨어진 존 앤더슨 형제의 집이었다. 프레드가 문을 열었고 나는 마차를 현관 앞에 대었다. 앤더슨 자매가 문을 열어 주었다.

“아이구, 새 집사가 왔구나.” 앤더슨

자매님은 프레드에게서 계량컵을 받으면서 말하였다 “가족은 다 안녕하지지, 크리스? 프레드 가족도 안녕하지고?” 우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매님은 집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컵에 가득 밀가루를 퍼서 가져 오셨다.

프레드는 공책과 연필을 꺼내서 썼다. “존 앤더슨 자매, 밀가루 두 파운드” 우리가 길로 나왔을 때 프레드는 “내가

하는 것 보았지”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공책과 연필을 건네 주는 것이었다.

“후배 집사가 항상 마차도 끌면서 헌물을 기록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너보다 글씨를 못쓰는 데”라고 나는 거절하였다.

“천천히 써. 알아볼 수 있게 쓰면 돼. 그리고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야 해?” 그는 물인정하게 말하였다.

다음 집은 미망인인 매리 올슨 자매님의 집이었다. 올슨 자매님은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였고 우리를 거실의 가장 좋은 의자에 앉혔다. 서가에서 자매님은 두 남자의 사진을 꺼내 오셨다.

“아줌마 아들들이란다.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지. 이 아이들도 너희들처럼 집사였단다. 매달 그들도 금식 헌물을 모으러 다녔지. 나는 이 아들들이 아주 자랑스럽단다.”

자매님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밀가루 한 컵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 두 사람에게 각각 롤빵 한 개씩을 주셨다.

“밖에 나가서 먹어라. 양탄자에 부스러기를 떨어뜨리지 말고.”

자매님은 밀가루 컵을 들고 마차까지 따라 와서 손수 자루에 담아 주셨다. “내달에 또 보자” 자매님은 우리가 떠날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벽에 공책을 대고는 조심스럽게 큰 글씨로, “매리 올슨 자매, 밀가루 두 파운드”라고 적었다.

나는 다음 집의 문을 두드렸다. 칼 크리스티슨 형제님 백이었다. 형제님의 딸은 나와 같은 학교의 같은 반 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문을 열어 주었다.

“엄마 집에 안계셔?” 그녀는 문을 조금만 열고는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황하고 문을

닫아 버렸다. “크리스티슨 자매가 집에 없다고 적어”라고 프레드가 말하였다.

“다음 달에 밀가루 두 컵을 주실거야.” 그러더니 예상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질건너 심슨 아저씨 맥으로 가자.”

“하지만 그 아저씨는 교회 회원이 아니잖아.”라고 내가 대답했다.

“그 아저씨는 좋은 분이야. 그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거든. 게다가 그 아저씨는 늘 우리에게 뭘 주신단말야.”

나는 한 번도 심슨 아저씨와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사실 나는 약간 그를 무서워 했었다. 그의 마당은 버드나무로 엮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안쪽이 보이지도 않았다. 길거리에서 몇 번 그를 본 적은 있었다. 그러나 항상 굉장히 큰 소리로 쫓아대는 개를 데리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프레드가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시오”라는 거친 음성이 들렸다.

프레드가 문을 열었고 우리는 걸어들어갔다. 방 끝에 기름 형질으로 덮은 식탁에 팔을 놓고 심슨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생전 처음 보는 크고 새까만 개가 있었다. 개는 으르렁거리더니 일어나려 하였다. 심슨 아저씨가 “조용히, 다이아블로”라고 명령하였다. (다이아블로가 악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여러 해 뒤였다. 그 이름이야말로 그 개에 꼭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네 친구냐?” 심슨 아저씨가 물었다.

“크리스예요, 저를 도와서 금식 헌물을 모으지요”

“안녕하세요?”라고 나는 의자 끝에

앉으면서 인사하였다. 프레드는 이미 큰
흔들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

나는 천장을 쳐다 보고는 마루 바닥
에 깔린 양탄자를 보고, 다시 방을 둘러
보았다. 식탁 위의 벽에 내가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발사 장치가 되어
있는 큰 총이 걸려 있었다. 심슨 아저
씨는 내가 총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다.

프레드가
나보다
선배였기 때문에
(그는 나보다
4개월 먼저
집사가 되었다)
내가
마차를 끌어야 했다.

“그건 총포 장전기야”라고 그가 말하
였다. “독립 전쟁시에 사용한 거다”

독립 전쟁! 그것은 수백년 전에 일
어났던 일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사
실은 약 15년전에 있었던 전쟁이었다.

총에 정신이 팔린 나는 거의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릴 뻔하였다.
그러나 그날의 우리의 임무를 상기하고
나는 프레드에게 “빨리 금식 헌물 모으
는 일을 마치는게 좋겠어”라고 말하였
다.

“언제든지 또 오너라”라고 심슨 아저
씨는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갈 때 말씀하
셨다. (그리고 그후 나는 여러 번 그의
집에 갔었다)

“자, 여기 있다. 엘프에게 갖다 드려
라”하면서 주머니에서 25전짜리 동전을
우리에게 주었다. “적지 않아도 돼. 나
는 너의 교회 회원이 아니니까”

“엘프가 누구야?” 나는 길을 건너면
서 프레드에게 물었다.

“퍼슨 형제님이야, 형제님의 이름이
엘프레드거든”

우리는 에드 피터슨 형제님 댁으로 갔
다. 문을 두드리자 피터슨 자매님이 문
을 열어 주시고는 주머니를 내게 주셨
다.

“계란 12개다. 밀가루보다도 계란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게다.
조심하거라 떨어뜨리지 말고” 자매님은
내게 주의를 주었다.

다음 집은 큰 제이콥슨 형제님 댁이
었다. 그들은 신혼 부부였다. 보기에는
그들이 중년 부부처럼 보였으나 아마 이
십대 초반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자매
님은 내가 보았던 중에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나오셨다. 자매님은 형집에 쌀 것
을 내게 주었다.

“지금 방금 구운 빵이야”라고 그녀가
말하였다. 나는 형집을 통해서 따뜻한
빵을 느낄 수 있었으며 갓 구어낸 빵냄
새가 꽤나 맛있게 느껴졌다. 나는 일요
일 성찬식에 이 빵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다음 집은 조지 피터슨 형제의 집이
었고 그 다음은 조진 울슨 형제의 집이
었는데. 그 두 집이 모두 밀가루를 주었
다.

마지막 집은 테나 술쯔 자매님 댁이

었다. 어머니가 내게 그 집에 가면 도와 드릴 것이 없느냐고 물으라고 말씀해주셨으나, 내가 자매님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들어오너라.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는데 그 전에 나를 도와 주지 않겠니?”

“물론 해드리지요. 무슨 일인데요?”

“내 애완 양 중의 한 마리가 우리에게 나왔는데 나 혼자서는 도저히 양을 잡을 수가 없구나, 프레드가야, 네가 마당 저쪽에서 몰고 크리스가 이쪽에서 몰면 양을 우리에게 다시 넣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프레드와 나는 팔을 저으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술쪼 자매님은 앞치마를 계속 흔들면서 “숫! 숫!”하며 소리를 질렀다.

양은 우리가 자기와 놀자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양은 마당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공중으로 높이 뛰기도 하였다. 양을 구석으로 몰아 우리에게 넣는데 반 시간은 걸렸다. 술쪼 자매님은 판자 몇 개와 망치를 가지고 오셨으며 프레드가 우리의 부서진 곳에 판자를 못으로 박아 주었다.

“고맙다. 애들아” 자매님은 정말 고마워하면서 말하였다. “햇 케익을 구워 줄게”

우리는 고맙지만 우리의 임무를 빨리 마쳐야 하고 집에서 해야 할 일도 있다고 말씀드렸다.

“오,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깜박 잊었구나.”하면서 자매님은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집고 또 집어서 끈으로 두 번 돌려 맨 봉투를 꺼내 주셨다. 곁에는, “금식 현금 10전, 제나 술쪼”라고 적혀 있었다.

“술쪼 자매님은 항상 일을 시키셔.”

프레드가 퍼슨 형제님 댁으로 돌아가면서 말하였다.

퍼슨 형제는 우리의 기록을 검토하셨다. “어디 보자. 밀가루가 여덟파운드, 계란 12개, 빵 한 덩어리, 현금이 35전이구나. 너희들 일을 잘 해주었다. 가난한 회원들이 너희들의 수고에 감사하게 될거야”

그리고는 퍼슨 형제님은 옆의 방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여보! 이 열심히 일한 두 집사들에게 상이 없겠오?” 곧 퍼슨 자매님이 과자와 우유병과 쿠키 두 개를 가지고 들어오셨다. 자매님은 식탁 위에 그것을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였다.

나는 프레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급히 돌아갔다.

“어떻게 되었니?” 내가 집 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물으셨다.

“잘되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 대답은 어머니를 만족시키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드려야 했다. 어머니는 특별히 술쪼 자매님의 양 이야기를 할 때 기뻐하셨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들에서 돌아오셨을 때 모든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려야 했다.)

“이제는” 갑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 흰 셔츠를 벗어라. 너무 더러워지지 않았으면 내일 성찬을 전달할 때 입어야 하니까, 그리고 구두에 먼지를 털어 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거라. 오늘 아침에 집을 떠나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집안 일을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마차에 금식 현물을 모으던 첫날이 끝났다.

그것이 62년 전의 일이었다. *



이 물 (무수 풀)

몸은 마셔도 1시간에 (이것은 모든 과일)

위에서 정으로 오기 풀
유용한 것이다

(소변을. 서서로. 피어.
비중. 반전. 신장. 감동.)
당뇨병 치료.)

수확을 초음에 바닷물이
20년 전 거리의 딱 깎은
앞서 2002 후로 마신다

